

---

## 민중적 신앙고백

---

“민중과 함께 민족을 위하여 땅 끝까지.”

이것은 교단 3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장로회가 내세운 새로운 이정표이며 오늘의 선교적 신앙고백의 방향을 집약한 것이다.

이 방향설정은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.

① 처음 기장이 싸운 것은 교권주의였다. 교권주의는 교회를 계도화하고 그 안에서 신앙과 신학의 자유를 억압했다. 그러므로 이 교권과의 싸움은 신앙의 자유, 학문의 자유를 쟁취하는 일이다.

② 이 교권에서의 탈출은 교회가 그 자체를 위한 계도를 깨고 세계로의 문을 개방하게 했다. 그러므로 이 역사, 이 사회에서 정의를 수립하고 비인간화의 온갖 구조악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진출함을 의미한다.

그러므로 기장은 거의 숙명적으로 불의와의 싸움에서 수난당했고 교조주의(敎條主義)를 깨고 신앙과 신학의 자유를 위한 싸움의 기수가 되어 개혁운동을 전개했다.

그 결실로 1970년대초에 신앙고백선언, 선교정책, 사회선언, 교회교육정책 등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한국 교회사에서 단연 선구적인 자기표명이며 이 교단은 그것으로 자기고백을 삼고 교회의

체질 개선에 힘써왔다.

그런데 ‘신앙고백선언’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 경과했다. 그 신앙고백선언에서도 인식했듯이 급변하는 사회정황에서 우리의 과제를 새롭게 다짐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. 그러한 자기 의식이 민중과 함께 민족을 위하여 땅 끝까지로 집약이 된 것으로 안다.

이러한 신앙고백의 새로운 표출은 ① 선 현장에 대한 진지한 각성, ② 우리 교회사에 대한 기본적 반성, ③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늘님의 명명(明命)을 의식한 것으로 보며 이것은 일대 개혁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.

바로 이러한 각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표어가 성서적으로 타당하냐를 묻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.

## 1. 우리의 현장

우리는 ‘해방’과 더불어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 서게 되었다. 그런데 이 땅이 양 진영의 군대에 점령된 상태에서 민족의 자주적 방향 선택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지리적으로 분단된 그대로 양 전선의 침단에 갈라서서 서로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맞대고 안으로 점령세력의 압력 아래 그같은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. 그중의 한 부분인 남한이 우리가 선 지점(地點)이다.

북쪽은 공산주의체제로 굳힌 데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자주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시장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국론으로 반공을 자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. 이러한 터전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현장이다. 그것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